

- 대중 인페르노 4회 모의고사 11월 9일 배부 - (제향날)

(급히 암전, 다시 밝아지면 전경.)

최 씨 : (한숨)

영오 : 그놈들이 어떻게 알고 잡으로 왔을까? 할머니.

(중 략)

최 씨 : 글썄 네가 다 오죽 알아서 하는 일이라 싫어 맘은 놓
인다는.

영수 : 네, 아무 염려 마세요.

영수 : 건넌방으로 들어가고 최씨는 영수의 등 뒤를 이우고 바
라보다가 한숨을 짓고 돌아선다.

(무대 급히 암전. 다시 밝아지면 도로 전경.)

최 씨 : (한숨) 그러더니 바루 그 이튿날 그게 장날이었지. 오
때가 될락말락해서 갑자기 — ! 어떻게 놀랐든지 내가 그냥
가슴이 더덕 내려앉아서 정신을 못 채리다가 그래도 미심쩍
어서 저 앞으로 나서보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네 외삼촌이
맨 — 앞장을 섰구나!(하략).....

영오 : 순사가 잡어가지 않아?

- 11월 10일 수능 압축 특강 문학 배부 자료(당일 현장) -

<챕터2. 현대산문>

[현대산문1] 채만식의 제향날 (why?)

① 가치관 :

성배(), 영수(), 상인()

② 최씨의 역할 : 증인

③ 소재의 기능 : 불씨, 프로메테우스

*프로메테우스 : (눈을 치뜨고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의(義)를
행한 보과(報果)품! 의를 이룬 보과품은 영겁의 고초! 죽지 아니
하고 영겁토록 받는 고초! 사나운 독수리가 살을 쪼아 먹고 까막
까치는 눈을 파먹고 귀를 떼어먹고 그러고도 끊이지 아니하는 극
형!

*프로메테우스 : 그래도 나는 의를 이루었노라. (하나님의 뜻을 거
역하고 인간에게 불씨를 전해 준) 나는 뉘우치지 아니하노라.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언어유희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여 내적 갈등의 해소를 암시한다.
- ③ 과거와 현재를 반복 교차하여 작품에 입체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④ 사투리를 사용하여 독자로 하여금 전통 복원의 과제가 시급함을 주제 의식으로 드러낸다.
- ⑤ 서사적 화자와 그것을 듣는 청자의 가치관 차이를 바탕으로 인물 간 거리감이 조성되고 있다.

- 2016 수능 b형 제향날 -

최 씨 : ㉠ 네 외할아버지도 그날 그러니까 그게 바로 구월
구일날 오늘이다. 오늘 오때[正午]나 되어서 촌에서 잡혀 온
다른 동학꾼 둘하고 같이 셋을 한꺼번에 총으로 쏘아 죽인
다고 사정(射亭)으로 끌고 나와서는.

㉡ 무대 급히 암전. 다시 서서히 밝아지면 제2장)

34. ㉠과 ㉡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최 씨와 영오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 ② 최 씨는 자신의 행동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 ③ 최 씨가 영오에게 과거의 사연을 들려주고 있다.
- ④ 영오가 듣고 있지 않으므로 최 씨의 뉘두리에 해당한다.
- ⑤ 최 씨는 목격하지 않은 사실을 추정을 통해 짐작하고 있다.

36.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할 때, 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채만식은 「자작 안내」에서 동학 농민 운동을 1부로, 기미
(3·1운동) 전후를 2부로, 그 뒤에 온 시대를 3부로 하여
「제향날」을 구상했다고 밝힌 바 있다. 1937년에 발표된
「제향날」의 1~3장(1막)은 1894년의 동학 농민 운동을 역사적
소재로 활용하고 있으며, 「극중 현재(제향날)」에서 43년이라는
시간 격차를 지닌 회상된 과거 장면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 시간 구조는 과거와 현재의 동일성을 암시하고 있다.

CH2. 수능 예상 문학 지문

[고전산문1] : 토끼전 - 미상 (why? : 토끼의 신분상승 욕구, 자라의 맹목적 충성, 지도층의 수탈), (同床異夢)

1) 서술상의 특징

① _____, 인물의 생각인가

자라 심중에 크게 기뻐 ↔ (토끼) 심중에 헤아리되, '내 천우신조로 자라를 만나 세상 풍진과 산중 고초를 다 벗어 버리고 수궁에 들어가 부귀를 누릴지니 어찌 즐겁지 아니리오'

② 삽입시의 효과 : 대상의 심리를 드러냄

(한 조각 붉은 마음을 품음이여 / 얼마나 분주히 청산에 다녔던고 / 이 몸이 수고를 아끼지 아님이여 / 창량을 박차고 갔다 돌아오도다.)

1) 서술상의 특징

① _____, 인물의 생각인가

- 인페르노 모의고사 0회 -

“ 왕명을 받자와 오호와 삼강을 무사히 지내어 동해가에 득달하와, 중산에 들어가서 늙은 토끼 하나를 백가지로 찢으며 천 가지로 달래어 간신히 업고 지금이야 돌아와 토끼를 객관에 머무르게 하고 신이 급히 들어왔사오나, 이 사이 옥체미령(玉體靡口)하심이 어떠하옵신지 하정에 황송하오이다.”하고, 인하여 토끼 달래던 말씀을 일일이 아뢰었더니, 용왕이 듣기를 다 하고 크게 기꺼 무릎을 치며 칭찬하여 가로되,

“경의 충성과 구변은 가히 남해 일국에 하나이니, 하늘이 과인을 도우사 경 같은 신하를 내심이로다.”

- 작자미상, 「토끼전」 -

이때 별주부 친지 망극하여 집에 돌아와서 부부 서로 손을 잡고 통곡하다가 문득 생각하여 왈,

“내 일시 경솔한 말로 은혜를 만나 무죄한 부인을 이 지경을 당하게 하였거니와 친 리를 함께 온 정이 적지 아니하고 제 마음이 악독하여 고집스럽지 않으니 우리 정성을 다하여 빌면 다시 측은히 생각하여 구해 주리라.”

하고, ㉠ 즉시 별당을 깨끗이 지우고 잔치를 배설하여 토끼를 정으로 청하여 상좌에 앉히고 별주부 내외 당하에 꿇어 백배 애걸하는 말이,

“오늘날 우리 두 사람 목숨이 선생께 달렸으니 넓은 도량으로 집착하여 잔명을 구하여 주옵소서.”

토끼 수염을 만지작거리며 웃어 왈,

“내 당초에 날 죽을 곳으로 유인함도 마음에 고이거늘 하물며 없는 간을 있다 하여 기어이 죽이려 함은 무슨 일이며, 위태한 때에 이르러 애걸하는 것은 나를 조롱함이나?”

- 작자 미상, 「토끼전」 -

3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유사한 어구의 반복과 대구를 통해 인물의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의태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움직이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 주고 있다.
- ③ ㉢: 동일 행위에 대한 다양한 묘사를 통해 대상이 처한 긴박한 상황을 역동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④ ㉠: 고사를 활용하여 상대에게 화지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 ⑤ ㉢: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인물의 행위에 대한 서술자의 시각을 보여 주고 있다.

- 현대 소설 투데이 ebs 11월 8일 배부 - 나목

S#48. 마루(밤)

어머니가 탈진한 채 서서 불 밝혀진 건넌방을 보고 있다.
경아의 숨죽인 흐느낌 소리가 들린다.

- 박완서 원작, 박진숙 각색, 「나목」 -

20. 위 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민이는 현재 자신의 신분을 숨겨야 하는 인물이다.
- ② 큰아버지는 현실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인물이다.
- ③ 어머니는 가족 간의 도리를 중시하지 않는 인물이다.
- ④ 경아는 과거를 떠올리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인물이다.
- ⑤ 옥이는 주변 사람들의 처지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인물이다.

- 11월 10일 수능 압축 특강 문학 배부 자료(공개 특강) - 나목

1) 지문 : 극문학의 등장인물은 사건 발생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건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관계가 인과적으로 연결될 때 작품의 사실성을 높일 수 있다. 위 글에서 폭격으로 인한 오빠들의 죽음이라는 사건의 발생은 등장인물의 영향을 받았으며, 사건 이후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보기 지문2 : 즉, 고목으로 상징되는 황폐함과 절망의 세계는 전쟁으로 인해 일찍이 고사된 나목과 같은 존재들, 예컨대 화자와 옥희도의 내면 세계였던 것이다. 이 세계를 옥희도의 그림을 통해 확실하게 시각적으로 인지하게 된 화자의 당혹감은 따라서 깊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소설은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古木)에서 나목(裸木)으로의 변화 욕망, 다시 말하자면 완전한 절망 속에서 새로이 진실한 희망을 길러 내고자 하는 화자의 전쟁 체험 세대들의 갈망을 담아 내고자 한다.**

- 인페르노 모의고사 1회 - 유치진의 소

개똥이 : 읍내 송금청에 갈려구 그랬어요. ㉠ 내가 소를 팔려다가 못 판 줄을 알구 우리 동무 녀석이 날더러 이렇게 말했어요.…… 읍내 송금청에서 오늘 네 시꺼 정 만주 가서 노동해 먹을 사람을 뽑는대구요. 그래서 나두 한 뭉기일려구 부랴부랴 서두른 거야요. 거기서는 노자두 주구 게다가 일자리까지 작정해 준대요.…….

처 : 에그, 이 일을 어째? ㉡ 공연히 생자식의 대가리만 터쳐 봤지!

말똥이 : (힘없이 손에서 낫이 툭 떨어진다.)

- , 「소」 -

4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2016 수능 나목 지문 -

“옥희도 씨 유작전이 있군.”
남편도 지금 그 기사를 읽고 있는 모양이다.
“죽은 후에 유작전이나 열어 주변 될 해. 살아서는 개인전 한 번 못 가져 본 분은.”
“...”
“홍, 그분 그림이 외국 사람들 사이에 꽤 인기가 있는 모양인데 모를 일이야.”
“홍, 작품의 상관을 험값으로 그려 준 대가를 제법 받는 셈인가.”
“죽은 후에 치켜세우는 것처럼 싱거운 건 없더라. 아마 어떤 ㉠ 비평가의 농간이었지...”
“홍, 당신이 생각해 낼 만한 친박한 추측이군요.”
“에이 모르겠다. 예술이니 나팔이니. 살아서 잘 먹고 편히 사는 게 제일이지.”
“알, 몰라야죠. 당신 따위가 알 게 뭐예요. 그분은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다는 걸 당신 따위가 알 게 뭐예요.”
남편은 신문을 떨구고 기지개를 늘어지게 췌다.
㉡ 나는, 찡찡 그의 얼굴에서 동굴처럼 뚫린 콧구멍과 그 속을 무성하게 채운 코털을 보며 잠깐 모멸과 혐오를 느꼈다.

(중략)

옆에 앉은 남편도 풍선을 쫓았던가 고개를 찡찡 채 눈이 한 짝 하늘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뿐, 이미 그의 눈엔 10년 전의 옛된 갈망은 없다. 그뿐이라. 여자를 소유하고 가정을 갖고 싶다는 세속적인 소망 외에는 한 번도 야망이나 고뇌가 깃들여 보지 않은 눈. 부스스한 머리가 늘어진 이마에 어느새 굵은 주름이 자리 잡기 시작한 중년의 그가 나는 또다시 낯설다.
저만치서 고등학교생들이 배드민턴을 친다. 공이 나비처럼 경쾌하게 날아와 라켓에 부딪치는 소리가 마치 젊은 연인들의 찰나적인 키스의 파열음처럼 감각적으로 들린다.
㉢ 나는 충동적으로 그의 이마의 주름 친 곳에 그런 키스를 퍼부었다.
그가 낯선 게 견딜 수 없어서였다. 그가 아주 타인처럼 낯선 게 견딜 수 없어서였다.

- 박완서, 「나목(裸木)」 -

- 2016 수능 지문 유치진의 소 -

나? 이 일을.
말똥이 : 아니야, 가만 있어. 내 소 팔어먹은 놈은 알어요. 저 그 쇠똥치란 소장수가 어떻게 생겼수?
소장수 B : 젊은 머리 깎은 녀석이지. 좀 똥똥허구.
말똥이 : 똥똥허구 머리를 깎구…… 음! 그렇지! 이놈을 내가 죽여 버릴 테야.
국진 : 내가 아니?
말똥이 : 인제 알았어요. 아까 개똥이란 녀석이 똥똥허구 젊은 사람을 데리고 왔겠지요. 그래 가지구 이 감냥구 밑에다가 소를 몰아 내놓구 한참 동안이나 뒤라구 쭈근거렸어요. 그리고 나를 보고는 그만 도망을 했어!
소장수 B : 그런 그건가 콧내다. 아무러면 불 안 땀 굴뚝에서 연기 날려구요. (퇴장)
국서 : 저런! 유실현!
처 : 이놈아. 똑똑이 못 본 일거든 이에 입에 담지 말어라. 왜 그놈을 소도적놈으로 몰라구 그래?
국서 : ……아냐, 그놈일지도 몰라. 그놈이 소 팔아서 만주 보내 달라구 좀 성화를 부렸어야지.

- 유치진, 「소」 -

*무부실하다: '무르스름하다'의 잘못. 뜻밖의 사실에 놀라 뒤로 물러서려는 듯이 하여 행동을 감자기 멈추다.

<보기>

극의 대부분의 긴장력을 무대 뒤에다 집중시키는 방법을 무대 리(무대 밖) 효과라고 한다. 유치진의 다른 작품「토막」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나오는데 직접적 원인을 은폐한 채 간접적인 상황만 암시하여 관객들로 하여금 은폐된 사건의 경과와 인과 관계를 추론하게 하는 효과도 고차원적인 무대리 효과이다. 이러한 것은 무대 위에 재현된 **일상적 삶의 배후에 정치적 현실을 배치시켜 팽팽한 긴장감을 구사하도록 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작가가 무대리 효과를 활용한 것은, 그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일제의 억압 현실’을 우회적으로 그려 내기 위한 것이다.

- 11월 10일 수능 압축 특강 문법 배부 자료 (공개 특강) -

2) ㅎ어간 말음의 음운 변동

-> 좋아[조아] : 탈락

-> 낱고[나코] : 축약

-> 놓는[논는] : 교체(일반적으로 교체(음끝) + 교체(비음화)로 봄, 이런 문제는 보기를 잘 봐야 함)

-> 닳는[달른] : 탈락, 교체(유음화)

-대중 인페르노 4회 모의고사 11월 9일 배부 -

[글 초고]

김홍도의 「타작도」는 조선 시대 농촌 사회의 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 시대는 화가의 사회적 지위가 낮았다. 우선, ㉡그림 가운데에는 통나무를 사이에 두고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농부들이 그려져 있다. ㉢농부들 사이에 놓인 그 통나무는 ‘개상’이라고 한데, 조선 시대에 곡식 낱알을 떨어내는 데 사용한 일종의 탈곡기라고 한다. 이 개상을 둘러싸고 가을이 되어 추수해서 거두어들인 곡식을 타작하고 있는 농부들의 모습이 신나보인다. ㉣그림 왼쪽에서 곡식단을 힘껏 내리치려는 농부의 모습이 보였다. 이 모습은 나에게 굉장히 역동적으로 느껴졌다. 한편, 그림의 오른쪽 위에는 술병을 ㉤앞에 두고서 비스듬히 기대 누워 있는 양반이 그려져 있다. 일하는 농부들을 거들지는 않고 누워 있는 양반이 알뜰하게 보이기도 하고 게을러 보이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 김홍도는 한 장의 그림 속에 농촌의 어느 가을 하루를 포착하여 담아냄으로써 조선 시대 서로 다른 계층의 삶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7.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글의 주제와 연관된 내용이므로 그대로 유지한다.
- ② ㉡은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앞으로 배치한다.
- ③ ㉢은 글 전체의 통일성에 저해되므로 삭제하도록 한다.
- ④ **은 조사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앞에서’로 바꾼다.**
- ⑤ ㉤은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어 주지 못하므로 ‘이 때문에’로 바꾼다.

36.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소』는 1935년에 발표된 유치진의 초기 사실주의 극이다. 사실주의 극은 다양한 연극적 장치들을 이용하여 무대 공간을 현실의 일부인 것처럼 꾸민다. 『소』는 시대를 질박하게 하는 용어의 사용, 치밀하게 계산된 행동과 대화 상황의 제시, 생동감 있는 구어체의 사용 등을 통해 당대 농촌 사회의 계층 간 위계 관계나 관습 그리고 농촌 사회에 내재된 갈등 상황을 충실히 재현하고 있다.

- 2016학년도 수능 11번 문제 -

11. 다음 ㉠~㉥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 울지 → [올치], 좁히다 → [조피다]
- ㉡ 끊어 → [끄너], 쌓이다 → [싸이다]
- ㉢ 솟도 → [숯또], 웃고름 → [온꼬름]
- ㉣ 닳는 → [당는], 부역문 → [부영문]
- ㉤ 읽지 → [익찌], 훑거나 → [훑꺼나].

① ㉠, ㉡: ‘ㅎ’과 다른 음운이 결합하여 한 음운으로 축약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ㄱ, 비]은 ‘ㅎ’과 결합되는 경우, 두 음을 합쳐서 각각

[ㄱ, 피]으로 발음한다. …………… ㉡

→ 답하고 [다카고]

- 2016학년도 수능 8번 문제 -

- ① ㉡: **조사의 사용이 잘못되었으므로 ‘도심에서’로 고친다.**
- ② ㉢: 앞뒤 내용을 고려하여 ‘그러나’로 고친다.
- ③ ㉣: 문맥상 부적절한 단어이므로 ‘늘이고’로 고친다.
- ④ ㉤: 문장성분 간의 호응을 고려하여 ‘시행한’으로 고친다.
- ⑤ ㉥: 사동표현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들지’로 고친다.

- 11월 10일 수능 압축 특강 문법 배부 자료 - (공개 특강) - 이형태

- 1) 누가, 오너라, 하였다 : 음운적 이형태로 설명이 어려움
- 2) 먹어, 막아 / 너를, 선생님을 : **음운 조건**으로 설명 가능. **모음 조화라든지 받침 유무**로 설명 가능

- 대중 인페르노 4회 모의고사 11월 9일 배부 - 이형태

13. <보기>의 ㉔에 해당하는 것을 ㉑~㉓에서 고른 것은?

< 보 기 >

형태소의 교체는 광범위하게 일어난다. 음운 변동에 의해 발생하는 교체가 있는 한편, ㉔음운의 변동은 아니지만 음운적 조건에 의해 발생하는 교체가 있고, 나아가 음운적 조건과 전혀 상관없는 교체 또한 존재한다.

㉑ : **값[값], 값만[값만]**
 ㉒ : 선생님의, 관호가
 ㉓ : 누가, 누구를
 ㉔ : 보거라, 오너라

- ① ㉑ ② ㉒ ③ ㉑, ㉒ ④ ㉒, ㉓
 ⑤ ㉓, ㉔

- 대중 인페르노 1회 모의고사 - 작문 주제 : 조화

6. <보기>를 활용하여 <조건>에 맞게 논설문을 쓰기 위해 구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국립 공원 안에 심어 놓은 나무를 대량으로 제거하고 다른 종류의 나무를 심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국립 공원 조성 당시 조속한 산림녹화를 위해 단일 수종으로 이루어진 숲을 만들어 숲의 건강성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단일 수종으로만 이루어진 숲은 외부에서 위협이 가해졌을 때 이를 이겨내는 힘이 약하다.** 예를 들어 숲에 특정 병균이 발생했을 때 나무의 종류가 다양하면 그 병균에 강한 품종의 나무가 병균이 퍼지는 것을 차단하는 방패막이가 되어 숲 전체가 파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단일 수종만으로 된 숲은 그럴 수 없다.

<조 건>

○ **<보기>의 내용에서 유추하여 개인 혹은 사회에서 지녀야 할 태도와 관련된 주제를 설정할 것.**
 ○ 예상 독자를 명시적으로 밝힐 것.
 ○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활용할 것.

-2016 12번 문제 -

12. 다음의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지금까지 형태소의 개념 및 유형 그리고 특성에 대해 공부했지요? 그럼, 다음 자료에서 밑줄 친 말들이 가진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 하늘은 맑고 바다는 푸르다. -> **받침 유무**
 - 그의 말은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 **음운 환경**
 - 나는 물고기를 잡았지만 놓아주었다. -> **모음 조화**

-2016 수능 10번 문제-

10. 다음은 학생이 초고를 쓰고 스스로 점검한 내용이다. 초고의 마지막에 추가할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마지막 부분이 완결된 것 같지 않아서 끝에 문장 하나를 추가해야겠어. **문단에서 쓴 내용으로부터 개인과 사회의 바람직한 관계를 이끌어 내어** 앞으로 가져야 할 내 삶의 자세에 대한 내용으로 글을 마무리해야겠어.

- ① 사회가 아름다운 하나의 빛깔을 가지려면 구성원들이 서로의 빛깔 차이를 줄여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②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나의 고유한 빛깔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살아야겠다.
- ③ **다양한 삶의 빛깔들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사람들의 서로 다른 삶의 빛깔을 인정하며 살아야겠다.**
- ④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각자의 빛깔을 드러낼 기회를 줄 때 사회는 더욱 아름다운 빛깔을 지니게 될 것이다.
- ⑤ 사람들과의 관계에 소홀했던 나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서는 삶의 빛깔을 지녀야겠다.

- 대중 인페르노 4회 모의고사 11월 9일 배부 -

16.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자료	<p>[중세 국어] 海東(해동) ㉠六龍(육룡)이 ㉡느르샤(아) 일마다 ㉢天福(천복)이시니</p> <p>[현대 국어] 해동의 육룡이 나시어 일마다 하늘의 복이시다.</p> <p>[중세 국어] ㉣불휘 기픈 남근 ㉤부르매 아니 뭇씨 곳 도쿄 여름 하느니</p> <p>[현대 국어]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리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다.</p> <p>[중세 국어]이런 ㉥전차로</p> <p>[현대 국어]이런 까닭으로</p>
학습 활동	<p>㉠~㉥을 비교한 후 서로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 보고 나아가 현대 국어와의 차이도 생각해 보자.</p> <p>(_____ [가] _____)</p>

- ① 의 '이'는 주격 조사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의 '이'와는 다르다.
- ② ㉢의 '-샤'와 ㉤의 '-시'의 _____ **차이**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지의 여부와 관련이 있다.
- ③ ㉢의 '-샤'와 ㉤의 '-시'는 현대 국어의 '-시'와 마찬가지로 주체를 높이는 어미로 기능하였다.
- ④ ㉤은 ㉠과는 **달리 주격 조사가 별도로 표기되지 않았지만 주어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에서 '매'는 ㉤의 '로'와 마찬가지로 원인을 드러내는 **부사격 조사로 기능하고 있다.**

- 대중 인페르노 2회 모의고사 -

11. <보기>의 내용을 근거로 볼 때, 단어의 구성이 **'미덥다'(단어의 뜻 : 믿음성이 있다, 어원 : 믿+엮+다)**와 같은 것은?

<보 기>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말이다. 현대 국어에서 단일어로 보일지라도 원래는 파생어인 것들이 존재한다. 이 때 사용되는 접사 중 일부는 어근에 붙어서 기존의 품사를 바꿀 수 있다. 가령 '우습다'의 '읍'은 동사 '웃다'에서 형용사로 바뀌게 하며, '깊숙이'의 '-이-'는 형용사 어근인 '깊숙'에 붙어서 부사가 되게 한다.

- ① 쓰기 ② 깨끗이 ③ 공부하다
- ④ **아프다(앓+브다)** ⑤ 끝내

- 2016 수능 16번 (b형)-

16. <보기>를 바탕으로 중세 국어의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王(왕)이니르샤디 大師(대사) ㉠**흐산**일아니면뉘흔거시 잇고 ㉡仙人(선인)이슬보디 大王(대왕)하이 ㉢南堀(남굴)스 仙人(선인)이흔썩를 길어내니양지端正(단정)흐야

㉣世間(세간)애 ㉤쉽디몬흐니그썩흐닐 ㉥時節(시절)에 자취마다 ㉦蓮花(연화) | 나느니이다

- 「석보상절」-

[현대어풀이]

왕이이르시되 “대사하신일아니면누가한것입니까”

선인이아되되 “대왕이시여, 이남굴의선인이한말을길러 내니모습이단정하여세상에(모습을드러내기가) 쉽지못하니 그말움직일시절에자취마다연꽃이납니다.”

- ① ㉠에서는 주체인 '대사'를 높이기 위한 선어말어미가 쓰였군.
- ② ㉡의 '이'와 ㉢의 '이'는 격조사의 종류가 달라서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난 것이군.
- ③ ㉢을 보니 '스'은 현대 국어의 '의'에 해당하는 관형격 조사로 쓰였군.
- ④ ㉤과 ㉥을 보니 모음조화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는 부사격 조사가 있었**군.
- ⑤ ㉥과 현대 국어의 '쉽지'를 비교해 보니 '-디'에서는 구개음화가 확인되지 않는군.

- 2016 수능 12번 (b형)-

12. <보기>는 한글 맞춤법 제1항이 파생어와 합성어에 적용된 예를 찾아본 것이다. ㉠~㉤에 들어갈 예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 소리대로 적되, ㉡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파생어 합성어

㉠만 충족한 경우 ㉢ ㉣

㉡만 충족한 경우 ㉠ ㉡

㉠, ㉡ 모두 충족한 경우 ㉤

줄자(줄 자),

눈물(눈 물)

① ㉢ : **이파리(잎아리)**, 얼음(얼 음)

② ㉣ : 마소(말 소), 낮잠(낮 잠)

③ ㉠ : 웃음(웃 음), **바가지(박아지)**

④ ㉡ : 옷소매(옷 소매), 밥알(밥 알)

⑤ ㉤ : 꿈(꾸 ㅁ), 사랑니(사랑 이)